



五福을 추구하는 축산인의 삶



조용환 편집상무
축산신문

이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 가운데 많은 이들은 술좌석에서 특히 둘 이상 모이면 술을 마시기전에 잔을 대면서 흥을 돋우는 말을 하고 마시는 습관이 있다.

유럽 북부 스칸디나비아 3국(스웨덴 · 노르웨이 · 핀란드)과 그 아래 덴마크에서는 ‘스콜’ 이, 일본에서는 ‘건빠이’ 를 거의 외친다. 우리나라도 술잔을 말리지는 뜻의 ‘건배’ 에서부터 자신은 물론 타인의 건강을 기원하는 뜻에서 건강을 위하여 등으로 예를 갖춘 후 술을 즐기고 있다.

본인은 16년전 논산 · 부여 · 서천 · 화성 · 여주지역 낙농가 21명과 함께 낙농부국 덴마크연수 당시 처음으로 스콜을 외치면서 잔을 비웠었다. 스콜잔을 제대로 비우는 방법은 러브 샷 형태로 술잔을 든 팔을 상대방의 팔과 엮어 마시되 상대방의 눈을 반드시 주시하고 다 마실 때 까지 절대로 떼어서는 안 된다. 스콜잔은 서기 800년에서 1050년 사이 활약한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해양상인을 일컫는 바이킹족이 노르망디 남쪽 바다까지 점령할 정도로 영역을 넓힐 때 취한 음주방법이라 한다.

의리가 있는 해양 상인은 서로의 권익을 위하거나 화해 또는 진정한 동료로서의 술잔을 기우리면서 스콜을 외쳤다. 반면 해양상인 가운데 비신사적으로 영역을 넓히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많은 해적들은 이웃 상인 배의 주인에게 술 마시기를 거짓으로 권하고, 상대방 잔에 독약을 넣는 일을 일삼았다. 따라서 그들은 마음의 창인 눈을 서로 주시하면서 술 한 방울을 넘길 때 까지 독약 여부를 재확인했던 것이다. 이 스콜잔은 이제 전 세계 많은 애주가사이 의리의 잔으로 통한다.

본인도 그 이후 십 수 년 동안 친한 사이의 사람과 술좌석을 할 경우

현대인은 五福 가운데 첫째는 建(건)이며, 그 다음은 妻(처)로 옆에서 돌봐주는 배우자가 소중하다고 한다. 셋째로는 財(재)로 수중에 적당한 재산이 있어야 하며, 넷째 事(사)는 일이 있어야 나태하지 않아 생활의 리듬을 잃지 않고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는 友(우)로 자신을 알아주는 참된 벗이 있는 것도 복 받은 삶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는 스콜을 한다. 또 가끔은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福(복)을 기원하면서 '五福(오복)을 위하여' 라고 선창하고 술잔을 비우기도 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오복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없다. 사실 시대가 변해가면서 정확한 답도 없다. 중국 書經(서경)에서 五福은 <1.壽(수)=오래 사는 것 2.富(부)=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편안할 만큼 재물을 소유하는 것 3.康寧(강녕)=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깨끗한 것 4.攸好德(유호덕)=남에게 선행을 베풀어 덕을 쌓는 것 5.考終命(고종명)=덕을 쌓아 마지막 죽음에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것>을 뜻 한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書經 가운데 攸好德과 考終命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문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남에게 재물을 나눠주며 선행을 베풀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은 五福 가운데 첫째는 建(건)이며, 그 다음은 妻(처)로 옆에서 돌봐주는 배우자가 소중하다고 한다. 셋째로는 財(재)로 수중에 적당한 재산이 있어야 하며, 넷째 事(사)는 일이 있어야 나태하지 않아 생활의 리듬을 잃지 않고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끝으로는 友(우)로 자신을 알아주는 참된 벗이 있는 것도 복 받은 삶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어무튼 과거나 현재나 건강이 최고다. 사랑과 돈도 좋고 일과 친구도 다 좋지만 오랜 병고에는 효자와 효부도 친구도 잠시 머무는 바람일 뿐 병상에는 늘 회한과 눈물이 먼저 자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 建을 위해 운동을 하고, 뱀에서부터 곰땀이·지렁이 등 엽기적인 식욕까지 탐하는가 보다.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축산인은 앞으로 가까운 사람과 술잔을 기울이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五福을 크게 외치고, 五福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갔으면 한다.

